

해체주의(Deconstructionism) 경향의 타이포그래피 스타일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ypography Style by Deconstructionism

신 청 우

성신여대, 한국예술종합학교, 동덕여대 강사

차례

- 1. 서론
 - 2. 이론적 고찰
 - 2-1. 서양철학사적 배경
 - 2-2. 구조주의 이론
 - 2-3. 탈구조주의 이론
 - 2-4. 해체주의 이론
 - 2-4-1. 해체주의의 개념
 - 2-4-2. 해체주의 이론의 특성
 - 3. 자크 데리다의 해체주의의 전략
 - 4. 해체주의 영향에 의한 디자인 스타일의 변화
 - 4-1. 해체주의 디자인 스타일의 변화
 - 4-2. 시각디자인과 타이포그래피의 해체적 경향
 - 5. 해체 타이포그래피의 스타일 분석
 - 5-1. 활자 형태의 해체
 - 5-2. 활자 성격의 해체
 - 5-3. 포맷의 해체
 - 5-4. 타이포그래피를 읽는 방법의 해체
 - 6. 해체 타이포그래피의 특성
 - 6-1. 해체의 작업화
 - 6-2. 타이포그래피와 이미지들의 상호 의존성
 - 6-3. 디자인의 비결정성
 - 6-4. 디지털 기술의 적용
 - 7. 결론
- 참고문헌

논문요약

문학, 건축, 순수미술, 영화, 산업디자인등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해체주의(Deconstruction)는 디자인 분야에도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보여지는 모습도 매우 광범위하며 표현에 있어서도 많은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해체주의 디자인은 포스트 모던한 상황과 다원화된 후기 산업사회, 데리다(J.Derrida)의 해체 이론과의 관계성을 통해 접근하고 있다. 특히 기호와 텍스트로 커뮤니케이션하는 타이포그래피와 시각 디자인 분야는 해체 철학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본 연구는 이러한 철학적 영향을 받고 있는 해체 타이포그래피 스타일 일의 변화를 분석하고 그 특성을 도출함으로써 해체 철학이 타이포그래피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Abstract

It has been known that deconstruction has affected various fields as literature, architecture, art, film, industrial design, and so on. Especially, deconstruction has applied into a wide scope of the design related fields through diverse ways and the results also show that there is a great potentiality in the ways of it's expression with different styles. Deconstruction design has been approached in connection with post-modernism, deconstruction theory of J. Derrida and pluralistic post industrial society. In particular, it is obvious that deconstruction philosophy has deeply affected the fields of visual design and typography which are mostly communicated with symbols and texts.

This study intends to examine how the deconstruction theory has been practically applied into the typography by analyzing the change of deconstruction typographic styles and exploring the distinctiveness of the change.

중심어

Deconstruction, Typography,

1. 서론

퍼스널 컴퓨터의 보급으로 이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편집과 타이포그래피를 쉽게 다룰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이로 인해 타이포그래피의 질적 수준이 떨어지는 편집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공존시키고 과거의 디자인사로부터 이미지를 차용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과 복잡하고 혼돈스러운 여러 요소들이 다층구조를 이루고 조각난 활자들이 불규칙하게 떠도는 듯한 해체 경향의 디자인으로 현대의 우리의 시각문화는 매우 혼란스럽다. 이러한 경향은 일부 비평가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의 욕구를 대변하면서 빠르게 번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새로운 실험적 접근을 흔히 기술의 발전과 스타일상의 변화 그리고 새로운 유행으로 흘러가 버리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과거의 디자인사를 돌아보면 실험적이고 새로운 스타일이 사실은 역사적 맥락에서 끊임없는 사고의 결과물로서의 그 역사적, 문화적 맥락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문학, 건축, 순수미술, 영화, 산업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해체주의(Deconstruction)는 디자인 분야에도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 용어 정립도 되어 있지 않고 보여지는 모습이 매우 광범위하며 최근의 사조에 고정되지 않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철학적 측면에서 해체주의 디자인은 포스트 모던한 상황과 다원화된 후기 산업사회, 데리다의 해체이론과의 관계성을 통해 접근하고 있다. 이것은 전통적 디자인의 모순성을 드러내기 위해 모든 것을 해체시킨다는 것을 의미하며, 플라톤에서 비롯된 서양의 형이상학이 추구해온 진리의 절대적 개념을 해체시키고, 지금까지 의심 없이 받아들여져 왔던 개념들에 의해 가려져 있던 상대적 개념들을 새롭게 발견하거나 의식에서 출발하여 철학 전반에 걸친 재확인 작업을 의미하고 있다.

국내 디자인계에서 해체주의 경향은 표면화되기 시작했고 그 전개가 활발하지만 이들이 추구하는 의미가 피상적인 신선편과 충격만을 상징하고 있는지 해체주의 이론의 예증적인 작업인지 아직까지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역사적으로 볼 때, 20세기 초의 전위적인 양식들, 미래파, 구성주의, 다다, 초현실주의, 바우하우스 등도 당시에는 비평과 외면속에 있었으나 이제는 디자인사의 한페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최근에 보여지는 타이포그래피에서의 해체적 경향들도 선형적 타이포그래피의 과거 전통을 파악하고, 진지한 노력의 탐색을 통해 전통을 뛰어넘는 창의력을 발휘하고 정당한 개념을 확보할 수 있다면 디자인사에 한 페이지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데리다 해체 철학의 주 공격대상이었던 서구 철학의 사상과 구조주의를 살펴보고, 해체 철학의 개념과 그 철학적 논의를 고찰한다. 그리고 이러한 철학적 영향을 받고 있는 해체주의적 타이포그래피 스타일의 변화를 분석하고 해체 타이포그래피의 특성을 도출함으로써, 타이포그래피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성립되지 않은 혼란 상황에 해체 철학이 타이포그래피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되

고 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2 이론적 고찰

2-1. 서양철학사적 배경

'진리'의 탐구가 근본적인 목적이었던 고대 서양의 철학은 신의 진리를 인간이 터득할 수 있도록 연구하는 학문으로 중세 기독교적 사회로 내려오면서 오랜동안 자기성찰이라는 진리 탐구의 길로 이어져 내려왔다.

플라톤의 이데아(Idea),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으로서의 현상, 현진¹⁾으로서의 존재, 그 후 데카르트의 코기토(Cogito)의 개념으로 대치되는 데 코기토의 개념은 유명한 명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에서 나온 용어로 무엇인가에 대한 의식이 무엇인가의 존재를 의미하는, 즉 지적행위를 하는 인간 자신에 의한 인지가 진리이고 보는 것으로, 지식의 근거를 명상이나 고행으로 얻는 수행상태에 두지 않고, 인간의 이성애 객관적 진리가 있다는 '인지'의 개념²⁾에 가치를 부여했다.

이후 헤겔이 제시한 현상학은 인식론적 방법론의 모순을 이성적으로 증명 가능한 존재론의 차원에서 극복하여 절대 이성의 가능성을 제시하는데, 데카르트로부터 이루어져 내려와서 헤겔의 절대 이성에 이르기까지 서양철학의 인간의 인식과 절대 지식의 기준은 니이체에 이르면서 부정적 회의론에 봉착한다.

니이체는 지금까지 플라톤 이후 헤겔에 이르기까지 지속되어온 이성적 사고, 즉 형이상학과 인식론에 대한 사고체계가 가진 인식론적 모순과 그 모순은 회의주의를 낳는다고 주장함으로써, 서양철학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구조주의는 이러한 사고체계의 전환을 시도했던 철학가들에 의해 시작되었는데, '구조'의 개념은 어떤 독립적 성격을 갖는 요소가 구조체계 내부에 들어오면 외부에서와는 다른 형태로 존재하며, 구조체계 내의 결합에 의한 전체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구조주의는 구조를 내세워 인간의 모든 행위에서 규칙이나 틀을 찾아 이를 구조화하려 하였으나, 개인의 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객관화시켜 추상적 체계를 추구함으로써 전체주의적 독선에 부딪히게 된다. 이러한 구조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1960년대 후반에 대두된 탈구조주의는 절대적 진리가 지니는 독선을 지적하고 진리나 개념들 사이의 차이와, 불확실성의 현시대를 인정하고, 기호의 확실성을 거부하여 기호의 의미는 유동적이고 일시적인 유보 상태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되거나 해석은 불가능하고, 절대적 진리나 의미를 해체하고자 하였다.

탈구조주의자들은 인본주의적 태도를 지향하여 자아를 중요시하고 지배문화로 부터 소외된 이들을 포용하고, 역사를 중요시하여 과거를 탐색의 대상으로 간주하였다.

결국 해체주의 이론은 앞에서 다룬 서양철학 전반의 이분법적 논리에 대한 대항이며 주로 구조주의 이론을 비판하고 해체를 시도하는

1) '현진'이란 인간의 수많은 경험들 속에 존재하는 '진리'가 인간에게 나타나는 방법을 말한다.

2) 임석진, 철학사전 서울:이삭 1988 P50

대 텍스트의 객관성을 거부하고 텍스트와 구조의 개념에 대한 해체를 시도한다. 하나의 텍스트를 해체한다는 것은 의미와 함축의 논리들이 갈등하는 것을 이끌어내는 것이며, 이와함께 그 텍스트가 결코 정확하게 그 의미하는 바를 의미하지 않으며, 의미하는 바를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³⁾

또한, 구조의 개념을 해체한다는 것은 이해의 한계를 결정해 버리는 의미의 구조를 우회함으로써 구조의 제반 가치를 불안정한 상태로 만들고, 새로운 형태를 창출한다는 것인데, 구조의 해체는 그 구조내에 위치하지 않고는 그 정확한 목표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내부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며, 현상의 목표, 해석적 구조들을 의심할 뿐 아니라 나아가 자신의 진행되는 해체까지도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이러한 해체주의 이론은 텍스트로서의 세계와 그것의 현상을 읽는 새로운 시각으로, 구조주의 말과 글을 포함한 언어의 특성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해석과 의미의 불확실성에 의해 해석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구조, 기호, 해석등의 방법으로 구조를 세워 패턴화하는 구조를 그 내부로부터 해체하고자 하는 시각이다.

2-2 구조주의 이론

앞에서 살펴본 대로 해체주의 이론의 주 비판대상은 구조주의이다.

1960년대 프랑스에서 시작된 구조주의(Structuralism)는 당시의 주된 철학의 흐름이었던 현상학과 실존주의를 거부하여 인간 혹은 집단을 기호와 제도, 체계등으로 설명하여 객관화시키려는 과학적 인식방법이다. 즉, 구조주의는 언어와 기호체계의 법칙으로 이루어진 상징들로 이 세상이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주로 언어, 기호학 분야에서 두드러지기 시작했는데, 이 언어와 기호는 문자로서의 기호와 시각언어로서의 기호로 커뮤니케이션하는 타이포그래피에게는 본질적인 측면이므로 주로 언어와 기호의 측면만 살펴보기로 한다.

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는 스위스의 언어학자로 언어는 구조에 의한 관계, 즉 하나의 체계로 보고 이러한 언어체계의 법칙을 찾으려 하였고, 이러한 언어의 체계가 구조주의 체계로 발전되어 '구조언어학'이 성립되었다.

소쉬르는 언어를 랑그(langue)와 파롤(parole)로 구분하였는데, 랑그는 추상적 체계로서의 언어를 말하며 파롤은 실제의 개인이 구사하는 말을 의미한다. 또 소쉬르는 기호도 이분화하였는데, 시니피에(signifié)와 시니피앙(signifiant)이 그것이다. 시니피에는 수동적 의미의 '소리'로 번역되는데 사물이나 대상자체가 아니라, 그것들에 대해 우리가 갖는 개념으로 기호의 내용적 측면이며, 시니피앙은 능동적 의미로 '능기'로 번역되며 말해지거나 들려진 의미있는 소리로 기호의 표현적인 측면이다.

소쉬르는 시니피에와 시니피앙을 분리되지 않는 하나의 개념, 즉 기호체계로 보았는데, 이 체계는 고정된 것도 아니고, 인위적이어서 그 기호를 선택하는데는 어떤 원리도 없다고 하였다.

이후의 해체주의 철학자 자크 데리다(J. Derrida)는 플라톤으로부터의 서양철학에서 소쉬르에 이르기까지 음성으로 표현된 말은 글로된 문자보다 언어적 진실성에 가깝다고 여겨져서 우위를 차지해왔다고

하였다. 즉 소쉬르의 구조주의적 견해는 시니피에와 시니피앙사이의 안정되고 예견되는 관계가 언어학적 기호체계를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하는데 반해 해체주의에 있어 의미의 발생은 시니피에가 연쇄적으로 치환되어 나타난 결과로 보았다.

이 견해에서 중요한 것은 의미의 지시대상인 시니피에는 떨어져 나가고 시니피앙이 주된 역할을 하게되어 시니피앙하에 시니피에는 끊임없이 부정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각기의 언어는 다른 언어와의 상호 관계속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시니피에와 시니피앙 사이에는 어떠한 자연적 연결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⁴⁾

이렇게 해체주의의 비평대상이 된 구조주의는 전통적 언어학의 역사주의를 거부하고 언어사상을 체계적으로 기술했으며 이전의 사상들이 갖던 요소들에 대한 '분석'을 '관계'로 보았으며 통시적(diachronic) 관점이 아니라 공시적(synchronic) 관점에서 구분하였기 때문에 번역주의적 경향을 띠며, 주체 설정에 있어 '인간' 보다는 '구조'에 중점을 두고 전체성을 중시한다. 이러한 구조주의의 사유는 새로운 사유방식이었으나 곧 여러 비판을 받게되는데 전체성, 비역사적인 태도나 개인을 인정하지 않고 객관화시킨다는 점등은 이후의 탈구조주의의 비판을 받게된다.

2-3 탈구조주의 이론

1960년대말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탈구조주의(Post-structuralism)는 구조주의의 '구조'를 그 내부로부터 '해체' 또는 '탈구조'함으로써 구조주의를 강력하게 비판한 복합적이고 다원적인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탈구조주의는 구조주의가 주장하는 서양철학의 붕괴와 해체를 주장하기 때문에 구조주의의 영향하에 구조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 이론이며, 해체주의는 탈구조주의의 커다란 흐름중의 하나인 이론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탈구조주의의 이해는 해체주의의 이해에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우리가 주로 살펴보고자 하는 언어와 기호의 측면에서 탈구조주의 이론을 살펴보면, 구조주의 철학자 소쉬르의 언어와 기호에 대한 체계적인 견해는 시니피에와 시니피앙의 안정되고 예상되어지는 관계가 언어학적 기호체계를 가능하게 한다고 하는 낙관적인 생각은 잘못된 것이며 의미는 본질적으로 불안한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으로 부터 시작되었다. 기호는 상대적이고 일시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확실한 것이 아니며 의미역시 유동적이고 일시적으로 유보된 상태에서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같이 탈구조주의는 인간의 이성에 기초한 진리 탐구를 하는 서구의 전통적인 사고 방식에 반발하여 진리의 부재를 주장하고 이전의 서양의 사고체계의 한계로부터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자 한 것이다.

구조주의의 한계 극복으로서의 탈구조주의의 입장을 살펴보면, '구조'를 강조하는 전체성에서 벗어나 자아와 개인을 중시하고 서구철학의 절대적인 형이상학적 전통을 상대성속으로 해체시키고, 언어와

3) 크리스토퍼 노리스, 앤드류 벤자민, 해체주의란 무엇인가? 도서출판 창람 1995 P11

4) 김민수, 모던 디자인 비평 안그래픽스 1994 P203-204

5) 김성곤, 탈구조주의의 이해 민음사 1988 P14

기호의 측면에서 구조주의가 주장하는 언어체계의 안정에 회의를 표방하고, 의미는 본질적으로 불안한 것이며 기호역시 시니피에와 시니피앙의 이분법적 양면성이 아니라 두개의 유동적인 층사이의 일시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시니피에와 시니피앙 사이에는 단절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기호와 그것들의 재현능력을 불신한다.

탈구조주의는 서양철학의 절대적 의미를 부정하고 의미들은 계속 연쇄적으로 치환되고 전개되어 해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결론을 유보시키고, 경직된 사고와 지배구조에서 벗어난 열려진 관점을 취하고 역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현대와 역사, 그리고 언어와 이데올로기 사이의 대화를 시도한다.⁶⁾

탈구조주의의 이러한 태도는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을 제시하지 않고 진실을 향해 우회함으로써, 지금까지 앞에서 살펴본 서구 형이상학 전체를 흔들고, 그동안 이어져 내려온 서구의 고정된 이성중심의 사고체계의 근본으로부터 전환함으로써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자 노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4. 해체주의 이론

2-4-1. 해체주의의 개념

해체주의(Deconstructionism) 이론은 최근에 철학, 문학, 건축, 예술등 서구의 사상계에 대단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론으로 1960년대말 프랑스의 철학자 자크 데리다에 의해 처음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해체주의 이론을 한마디로 정의내리는 것은 불가능한데 그 정의를 내리는 자체가 해체주의에 위배되며, 언어체계속에서 생생하게 사용되고 있는 단어의 의미를 고정시키고 자기동일적인 의미만을 갖게하는 것이야말로 해체주의가 비판하려는 바이기 때문이다.

해체주의는 기본적으로 아주 미묘한 의미의 차이마저도 민감하게 느끼려는 자세로 고정된 개념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고자 하는 입장이다. 해체라는 것이 그 자체로는 무엇을 의미하지 않고, 무언가를 바라보는 태도를 지시하기 때문에 그 무엇도 해체를 개념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음은 해체주의의 몇가지 정의들이다.

1. 텍스트의 이론 및 분석의 존재방식으로서의 해체주의는 전통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모든 것을 뒤집어 엎고, 기호와 언어, 텍스트, 컨텍스트, 작가, 독자, 역사의 역할, 해석의 임무, 비평형식 등에 대한 기존 개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빈센트 다이치)
2. 해체주의는 명백히 구별되어 있던 카테고리를 전략적으로 역전시키는 것만은 아니다. 그것은 정해진 우열 순위 뿐만아니라 그 순위를 가능케 하고 있는 개념체계의 해체까지도 노리고 있다.(크리스토퍼 노리스)
3. 해체주의적인 독서는 텍스트 속에 숨어있는 전제들을 억지로 끌어내고, 거기에 있는 피하기 어려운 모순을 지적한다 그것은 텍스트 속에서 작용하고 있는 형이상학적인, 로고중심주의적인 모순을 취급하여 그것을 역전시키고, 의문을 제기하며 '중성화'하려 한다. 그러나 우리들은 로고중심주의의 밖으로 나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부로부터 모순에 대항할 뿐이다.(양 제퍼슨)
4. 따라서 해체주의란 스스로가 고발하는 것과의 사이에 무언가의 공

범관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텍스트를 연출하는 행위가 된다. 이 때 가장 엄밀한 독서를 한다해도 스스로 조작해 낸 개념마저 일시적이나마 해체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데리다가 주장하는 대로 해체주의는 그것 자체가 해체적인 독서를 허락하는 수사법에 필연적으로 속하기 때문에 텍스트와 텍스트 사이에 마지막 말이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크리스토퍼 노리스)

5. 해체주의는 현실이 갖는 진실성을 확실한 사실이나 그것이상, 또는 객관적인 자연으로 보려는 시도에 대해 거기에는 균열이나 차이가 구성요소로서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함으로써 비판한다.

대표적인 해체주의 철학자 자크데리다에 의하면 "해체주의 운동은 구조를 외부로부터 붕괴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일 뿐 더러 효과도 없다. 때문에 구조내에 정주하지 않고는 정확한 목표를 겨냥할 수 없다 해체의 시도는 반드시 내부로부터 작용한다. 그것은 역전을 위한 전술과 힘을 오래된 구조로부터 빌릴뿐만 아니라 구조적으로, 즉 그 요소나 원자를 분리시키지 않은 채로 빌려온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스스로의 회생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⁷⁾라고 해체철학의 기본 입장을 표명했는데, 그의 저서 '문법학에 대하여 (De la grammatologie)', '글쓰기와 차이(L'écriture et la Différence)', '목소리와 현상(La voix et le phénomène)'의 발표이후 서구의 사상계에 커다란 영향력을 끼치고 있으며, 철학, 문학이론에 이어 역사학, 법학, 정신분석학, 예술, 건축등 여러분야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2-4-2 해체주의 이론의 특성

해체주의의 주요한 이론적 개념들의 특성을 요약해 보면 첫째, 이성중심주의에 대한 해체이다. 데리다는 구조주의의 이분법적 대립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여 텍스트를 해체함으로써 이성중심의 사고는 해체되고, 이성의 도구인 언어는 유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둘째, 인간 주체에 대한 비평이다. 여기서의 주체는 개인의 차원을 넘어 문화적으로 특수하고 일반적으로 무의식적인 활동들까지도 의미하는 구조로서 인간실체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이러한 인간주체에 대한 견해는 전체적으로 통합된 주체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상이한 의미, 상이한 주관성, 상이한 상징적 질서로 이해되어야 한다.⁸⁾ 이는 반인간주의적, 혹은 주체의 해체를 의미한다. 셋째, 구조언어학의 기호와 언어의 의미이론을 해체시킨다. 소쉬르의 시니피에와 시니피앙의 이분법적 구조를 붕괴시키고 의미의 발생은 시니피앙이 연쇄적으로 치환됨으로써 나타난 결과로 간주하여, 각각의 명제와 실체사이에는 일대일의 대응관계가 더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각각의 단어는 다른 단어와의 상호관계속에서만 정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여 언어와 의미구조를 해체시킨다.

넷째는 역사상의 해체이다. 역사개념에는 일정성과 본질이 존재할 수 없고, 다만 국지적이고 불연속적이라는 것이다. 즉, 역사에서는 최종적인 보편성은 결코 획득될 수 없다고 보고, 역사적 형태들의 파편성과 사건 이면 요소들의 다원성으로 대체되고, 모더니티라는 전체 합

6) 앞글 P40~41

7) 이광래, 해체주의란 무엇인가 교보문고 1989 P373~374

8) J.Lacan, Ecrits "A Selection" (London, Tavistock 1977) p70~71 인용한 김민수의 모던 디자인 비평에서 재인용 P201

리성의 역사이념은 마침내 해체된다.

다섯째, 문화에 대한 해체이다. 계몽주의 철학자들은 예술과 자연의 힘에 대한 통제뿐 아니라 자아, 세계, 도덕적 진화, 제도의 정의, 심지어 인간 존재의 행복에 대한 이해를 조정하려했다. 그러나 이는 이상과는 달리 제도화되어 오히려 문화나 많은 일상적 삶의 가치들을 오염시켰다고 주장한다.⁹⁾

따라서 오늘날 주된 문화적 현상으로 사회적 정체성이 걸여된 파편성, 복종의 결여, 자기도취, 지위와 업적으로 부터의 철회등을 성공적인 자본주의 경제의 현대화의 결과로서가 아니라 문화적 모더니즘의 결과로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는 해체의 대상이 된다. 해체주의에서는 문화를 전체적 통합의 형식으로써가 아니라 국지적 광고에 의해 형성된 것을 의미한다. 즉, 문화에는 어떤 단일한 체계가 존재하지 않고, 상이한 담론체계들에 의해 형성되어 불안정, 무질서를 있는 그대로 포용하여 다양성과 열린 사고를 추구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체주의의 특성은 인간주체, 언어적 자아, 역사적 인과성, 그리고, 문화적 진실에 입각하여 종래의 형이상학적 체계에 대해 비평적인 견해를 표명한다.¹⁰⁾

3. 자코 데리다의 해체주의의 전략

자코 데리다는 지식과 진리로 직접적인 접근을 시도해온 서구의 철학적 전통을 로고스 중심주의(logocentrism), 또는 음성 중심주의(phonocentrism)라고 규정했는데, 이러한 태도는 우리의 언어활동에서 '말'과 '문자' 사이의 대립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즉, 지금까지의 음성으로 표현된 말은 글로된 문자보다 우리의 언어적 진실성에 더 가깝다고 생각되어 왔기 때문에 말은 문자에 대해 언제나 우위적인 특권을 부여받아 왔다는 것이다.¹¹⁾

이러한 로고스 중심주의의 서양 철학은 소쉬르의 구조언어학으로 이어져 내려온다. 소쉬르에 의하면, "언어학의 대상은 '말'로된 단어와 '말'로된 단어의 결합으로 규정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후자만으로 그 대상을 이룬다." 또는 "문자는 언어의 내적 조직과는 무관한 것이다." 이처럼 언어학에 있어 문자는 쓸모없는 것이 동시에 위험한 외적 표기의 현상이라고 하여 배제된다.¹²⁾

데리다는 이런 로고스 중심주의의 근본적 의미를 부정한다. 어떤 기호가 다른 기호의 근원이라면 또 그 근원의 근원을 찾을 것이고 그 과정은 끝없이 이어져 근원적 근원의 성립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결국, 모든 의미의 근원적 진리탐구를 목적으로 했던 서양철학의 전통을 총체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또 말을 문자보다 우선시 해 오던 음성중심주의를 비판하는데 음성중심주의의 말은 글보다 의식의 내면적 목소리를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본질을 더욱 명백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따라서 말보다 간접적인 글은 그 본질의 전달이라는 면에서 떨어져지며, 그 때문에 말은 글에 대해 우위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데리다의 이러한 말의 글에 대한 우위성을 주장하는 음성중심주의도 사물의 근원적인 본질을 나타내는 언어의 근원 부재로 인하여, 결국 허구라는 것이다. 즉, 말과 글은 특권이나 우위의 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적으로 얽혀있는 관계로 보았다.

언어 자체는 늘 문자로된 텍스트내에 작용하고 있는 힘의 위치를 혼란시키는 능력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이는 언어를 통해 의사소통을 하는 상황에서 그것이 말이란 문자이든간에 현전하지 않는 요소와 관련되지 않고는 기호로 작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¹³⁾ 따라서 의미는 차별적인 모습들의 산물이지, 말이나 문자인 기호의 표상과정에서 일대일의 지시 대상적 산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거기에는 관계적 특성만이 존재하고, 따라서 모든 기호는 관계적 차이에 의해 형성된다는 것이다. 데리다는 이것을 어떤 제한으로 사로잡을 수 없는 무제한적 차이(différance)라는 신조어로 설명하려 하였다.

데리다의 해체의 전략은 텍스트의 분해나 해체가 아니라 글쓰기와 차연, 보충, 산중들의 개념들을 관계시킴으로써 연속적으로 언어적 대치와 치환의 사슬에 따라 '차연'됨으로써, 어떤 의미에 대한 본질적인 대답은 존재하지 않고 의미론적 견지에서는 생각될 수 없기 때문에 의미의 부재를 의미하고, 관계적 치환에 의해 또다른 해체를 위한 출발로 삼고있는 것이다.

① 에크리튀르(écriture, 글쓰기)

에크리튀르는 문자, 문체, 서적이라고하는 의미와 쓰는 행위, 또는 쓰는 방법이라는 의미이다. 데리다는 넓은 의미의 에크리튀르와 텍스트를 확대해석하여 여러 규약이나 문화 까지도 'texte' 또는 'écriture'라고 불렀다. 따라서 데리다는 진리, 자아, 역사, 예술등을 해결되지 않는 텍스트로 간주하고, 해체를 시도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형이상학적 한계를 지적하면서, 그것의 상대적인 효과를 이용하고 그것의 개념들을 포섭하는 형이상학을 붕괴시키는 일이라고 하였다.¹⁴⁾

② 차이, 차연(différence, différance)

차연은 차이를 의미하는 différence에서 a를 고의적으로 바꿔 만들어진 데리다의 신조어이다. 이 두 단어는 프랑스 발음에서 발음상의 차이가 없지만 글로 표현될 때는 차이가 있다. 즉, 글로 표현될 때 더욱 명료하게 성격이 드러나므로 기존의 사고는 스스로 해체된다. 이점은 앞으로 다루게 될 타이포그래피의 해체적 원리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데 앞서 다룬 두 단어의 발음상의 차이없음과 시각적으로 존재 가능성은 타이포그래픽적 표현에 그대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여진다.

차연은 차이에 시간의 개념이 도입되어 차이가 지연되고 하나가 다른 것을 가리키거나 다른 것과 구별되며 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존재물 사이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것을 잘 표현한 글은 "공간적 개념의 차이는 언어와 그것이 재현하고자 하는 것과의 차이이며, 시간적인 개념의 지연은 언어가 재현하려는 현존의 끝없는 유보를 의미한다. 즉, 하나의 텍스트속에서 어느 한 요소의 의미는 그것의 연관과 맥락에 의해 그 텍스트 내의 다른 요소들과 상호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현존할 수 없으므로

9) D.Bell 'The Cultural Contradictions of Capitalism' (NY: Basic Books 1976) 인용한 김민수의 앞글에서 재인용 P208

10) 앞글 p209~210

11) J.Derrida 'Of Grammatology, trans. Gaytri C. Spivak' (Baltimore: Johns Hopkins Univ. Press. 1976)에서 인용한 김민수의 앞글에서 재인용 P167

12) 이광래 해체주의란 무엇인가 교보문고 1989 P375

13) J.Derrida 'Positions'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1981) p26에서 인용한 김민수의 앞글에서 재인용 P169

14) 이광래 앞글 P378

의미는 본질과 영원히 차이를 갖게되어 끝없이 유보되는 것이다.¹⁵⁾ 이처럼 차연은 실체성이 결여된채로 치환의 연쇄고리 속에 있으면서 동시에 이 연쇄 고리를 성립시키는 작용이기도 하다.

③ 여백 (marge)

데리다는 그의 저서 여백(marge)에서도 논의 하고 있지만 그 이전부터 서양 철학자들의 저술들에 자신의 글쓰기를 그 여백에 위치시키면서 세밀한 곳까지 해명, 분석해 나간다.

즉, 대상이 되는 텍스트의 초라한 흐트러짐을 확대하면서 문제의 전위나 이동을 가능하고 여러겹으로 쌓아감으로써 철학의 전통적인 전체들의 토대에 구멍을 뚫는 작업으로, 데리다가 주로 사용한 해체의 전략중의 하나이다.

특히, 데리다는 '그라마톨로지에 대하여', '에크리튀르와 차이' 등의 자신이 쓴 책들을 서로의 여백에 스스로를 위치시키는 구조를 이루고 있다. 상호 교차시켜 위치시키려는 이러한 작업을 통해, 어떤 것이 주된 것이고 어떤 것이 딸린 것인지 분간할 수 없도록 위치와 역할을 끊임없이 교환함으로써 주와 종의 서열이나 가치를 폐기하려한다. 주로 '서문'이나 '각주'에 대해 이러한 생각들이 적용되고 있는데 본문에 대해 여백에 위치하는 서문이나 본문의 여백에 쓰여지고 있는 각주에 대한 고찰이 그러하다. 데리다의 텍스트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 서문인 동시에 각주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그의 텍스트는 언제나 무엇인가 따라와야할 다른 텍스트를 예고하는 '서문'인 동시에 다른 텍스트에 대해 먼저 나와있는 '주'인 셈이다.¹⁶⁾

이러한 데리다의 여백의 전략은 타이포그래피의 무게 중심의 설정 및 레이아웃에서 알게 모르게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서 다양하고 극단적인 형태로까지 변화하고 있다.

④ 흔적 (trace)

흔적이란 어떤 의미에서는 에크리튀르보다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문자는 물론이고 그것 이외의 흔적일반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요컨대 일반적 의미에서 글쓰기 (문자, 문자언어, 쓰는 일, 쓰여진 것)로서의 흔적이 있는가하면 흔적(또는 원초적 흔적)으로서의 글쓰기가 있기 때문이다.¹⁷⁾ 데리다는 "흔적은 단순히 기원의 소멸이 아니라 기원이 소멸조차 하지 않았던 것, 기원이 일찌기 형성되었던 것은 비기원, 즉 흔적에 의해서 반작용으로 되었던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그렇게함으로써 흔적은 기원의 기원이 된다." 또 "흔적은 이미 형성되고 있는 차이가 아니라 모든 내용이 결정되기 이전에 차이를 낳게 하는 순수작용이다. 순수한 흔적은 차연인 것이다." 또, 흔적은 일반적 의미에 있어 글쓰기 뿐만 아니라 그림과 음악의 영역에도 작용한다. 이러한 것들도 모두 흔적의 일반적인 공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흔적은 디자인과 타이포그래피에 있어서는 시각적인 요소이기도 하고, 해체 철학내의 위치에서는 무의식의 텍스트 자체가 이미 흔적에 의해 조직되어 있고 거기에 의미와 힘이 일체화되어 있다고 했기 때문에 타이포그래피의 언어와 기호의 시각화 작업에 반영될 수 있는 전략중의 하나인 것이다.

⑤산종 (dissemination)

산종이란 본래 종자(semence)가 출생지로부터 다소라도 멀리 떨어져 여기저기에 뿌려지는 것을 의미한다.

데리다는 'La Dissémination(1972)'이라는 책에서, 이단어는 어떤 단어가 처음 사용된 장에서 부터 떨어져나가 곳곳이 흩어지고 새로운 의미작용을 어떻게 해나가는가를 가리키고 있다.¹⁸⁾

데리다는 다의성이나 텍스트를 초월하는 잠재적인 것을 다시 나타내는데 산종이란 단어를 사용하는데, 즉 모든 사항을 잠재적으로 보충하고, 본질적으로 무한히 치환케하는 이론인 동시에 그것의 실현이라 할 수 있다. 산종 역시 '의미의 전달과 재생산'이라는 커뮤니케이션의 측면의 시각화에 기능주의를 넘어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전략중의 하나라고 하겠다.

⑥보충(supplément)

데리다에 의하면 보충이라는 개념에는 기묘할 정도로 필연적인 두가지 의미작용이 동거하고 있다. 첫째로 이 단어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전체에 부가되는 일종의 '잉여'이고 '과잉'이며 '충실하게 하는 또 하나의 충실함'이다. 이렇게 해서 예술, 이미지, 표상 등은 '자연'에 부가되는 보충물이 되는 것이다. 둘째로 보충은 '대행한다(suppleer)'의 의미가 있는데 대행한다는 것은 거기에 어떤 결여가 전제되기 때 문이고 거기에 보충되어야 할 충실함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보충은 차연과 마찬가지로 데리다의 모든 텍스트속에 있는 몇가지의 동의어이자 상호보충적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들 가운데 하나이다.¹⁹⁾

⑦미메시스(mimésis)

데리다의 미메시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서와 같은 고전적 의미의 은유를 가능케하는 기반을 의미한다. 그것은 단순한 모방이 아닌 '로고스'에 속한 작용으로서의 미메시스이므로 모방이라고 보다 분석이나 해명으로 해석해도 좋다.

데리다에 있어 미메시스는 단순히 대상의 바깥에서 그것을 분석, 해명하는데 그치지 않고 말투나 몸짓, 그것의 실현 형태를 통해 말의 의미와는 다른 의미를 실현하는 행위이다.

⑧반복(répétition)

데리다의 핵심개념인 텍스트들도 그것 자체가 일종의 반복이거나 반복가능성을 조건으로 하여 성립되었기 때문에 반복은 데리다의 핵심적인 개념들 가운데 하나이다. 데리다에 있어 반복은 단순한 대상의 모방으로서의 반복이 아니라, 반복이전에 반복 없이는 존재하는 어떠한 기원도 있을 수 없다는 '기원에 있어서' 부터의 반복을 의미한다. 데리다는 "현재가 현재로서 부여되어지고, 자기현전하며, 시간의 무대내지 무대의 시간을 여는 것은 현재 그 자체내에 내재하는 차이와 자연작용인 차연을 수용함으로써만, 즉 현재의 기원에 있는 반복되지 않은 기호=표징, 즉 그 최초로 있어서 이미 반복에 의해 분할되지 않은 기호는 기호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한다. 반복은 미메시스와 마찬가지로 데리다의 에크리튀르를 이루는 근본원리 가운데 하나이다.²⁰⁾

15) 김성근 탈구조주의의 이해 1988 p20

16) 이광래 앞글 p380~381

17) 이광래 앞글 p381

18) 이광래 앞글 P382

19) 이광래 앞글 P383

20) 이광래 앞글 p384~386

4. 해체주의 영향에 의한 디자인 스타일의 변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양의 형이상학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시작된 해체주의 이론은 서양 철학 전반에 커다란 영향력을 끼치고 있으며 철학, 문학이론에 이어 역사학, 법학, 정신분석학, 예술, 건축 등 여러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디자인 분야 역시 해체의 경향이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고 또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실제로 건축, 패션, 산업디자인, 타이포그래피 등에서 보이는 각기의 디자인 스타일들은 해체의 개념들이 다양하게 해석되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스타일들에 대해서는 어떤 일관성을 부여하기 어려우나, 그 양식적인 성격이나 현황분석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립에 일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4-1. 해체주의 디자인 스타일의 변화

서구의 형이상학적 전통의 한 맥락으로서 모더니즘 디자인은 이성중심의 사고와 기능을 중시하였다.

해체주의는 이러한 이성중심적 모더니즘의 철학적 논의들을 해체시키고 일차적인 과정이나 원칙을 고집하지 않고 있는데, 해체주의 입장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더니즘에 대한 이탈이기 보다는 단지 일종의 대응논리의 성격으로 보여진다.

반면 해체 자체는 어떠한 대응 논리적 성격을 갖지 않으면서 모더니즘의 계획을 초월한다는 것이다.²¹⁾

이러한 해체주의에 영향을 받은 디자인은 모더니즘이나 포스트모더니즘적인 표현에서 벗어나 원칙과 과정을 고집하지 않고, 표현되는 언어나 기호, 상징성 등을 다양한 암시와 상상력, 은유 등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이는 현대라는 복합적 성격을 내재하고 있는 시대의 새로운 표현 언어로서 열린 사고로서 디자인 표현 영역을 확장시키려는 의도이다.

다시말해 이러한 새로운 스타일의 표현은 세계를 보는 새로운 시각의 태동을 의미한다. 해체주의 디자인이 양식적으로 표면화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후반부터라고 할 수 있다.

건축은 1968년 미국의 뉴욕 현대 미술관에서 탈구성주의 건축 전시회가 열리면서 해체주의 건축이 모습을 드러냈다.

베르나르 츠미(Bernard Tschumi)는 고층건물이나 공원같은 대규모 계획 작업에 해체주의 스타일을 반영했고, 코프 힘멜 블라우(Coop Himmelblau)나 프랑크 게리(Frank Gehry)는 주로 실내 인테리어에서, 또 최근에는 건축의 이론과 실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피터 아이젠만(Peter Eisenman)이나 자하 하디드(Zaha Hadid)의 실내공간에서도 해체주의적 공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해체주의적 건축이 보여주는 디자인은 더 이상 공간을 기능이나 경제적, 실용적 기준으로 구성하지 않고, 건물의 프로세스가 전적으로 계획과 도면에 의해 더 이상 통제되지 않을 지도 모른다는 새로운 태도를 통해 개방성을 강조하고 유연성이나 미완성적이고 임시적인 것을 제시하기 위한 불안정성을 표출한다. 이러한 해체주의적 경향은 젊은 건축가들이나 디자이너들에게 급속도로 파급되어 가구나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산업 디자인분야에서는 아직 해체 개념을 정의시킨 작업은 보이지

않지만, 해체적인 모습을 찾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 주로 이러한 모습들은 기능적이고 합리적인 제품의 형태 표면을 해체하는 것으로 부터 시작되는데, 일본으로부터 시작된 제품의 블랙 박스적인 외형을 해체시킴으로써 복잡함을 갖는 외부와 단순함을 갖는 외부의 이중적 구조를 해체시키고 있다. 이는 제품의 형태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의 해체, 생산 프로세스의 해체 뿐 아니라 진정한 문화적 오브제의 개발이 전적으로 합리적인 계획 위주의 디자인 사고에 의해서만 수행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²²⁾

그외에 패션 디자인 분야에서도 의복 구조의 해체, 의복 기능 자체를 해체시키는 경향이 제시되고 있다. 조각난 옷의 앞면과 소매 등으로 옷의 전체성을 암시하거나, 속옷과 겹옷의 개념 구분을 해체시킨다. 해체주의 패션의 성격 역시, 의복의 구성적 규범에 대한 저항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러한 해체는 또 다른 능력을 위한 은유가 제공되고, 분석적이고 새로운 창조 의 기반이 될 수도 있다.

4-2 시각디자인과 타이포그래피의 해체적 경향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체 경향의 디자인은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고 있으나 텍스트와 기호로 커뮤니케이션하는 타이포그래피와 시각 디자인 분야에서는 더욱 해체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분야이다. 특히, 광고는 시각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풍부하고 강력한 형태로서 최근 보여지고 있는 일부 광고에서 나타나는 해체 경향의 표현은 기존의 메시지 전달에서 이탈해, 직접적인 메시지를 부재시킨 이미지를 등장시킴으로써 인식적 공간의 벽을 해체하고 있다. 여기서 이미지는 직접적으로 메시지와 연결 가능한 것이 아니라 데리다가 말한 궁극적인 차이와 관련된 더 많은 상이한 체계를 임의적으로 다른 측면에서 환기 시킴으로써 직접적인 통합과정이 지연되고 더 많은 우연적인 것들이 겹치고 확장되면서 인식의 범위는 확장되는 것이다. 이러한 대담한 전략적 광고는 기존의 광고가 취해야 할 목적과 기능에 대한 고정 관념을 해체시킴으로써 가능하다.

미국 중서부 미시간주에 위치한 크랜부룩 미술학교(Cranbrook School of Arts & Design)의 캐더린 맥코이 교수에 의해 형성된 '크랜부룩 스타일' 역시 탈구조주의와 기호학의 영향하에 해체적 경향을 띠고 있다. 맥코이는 문자와 사진들을 겹치게 하거나 다른 구조들을 붙여서 배치함으로써 복잡한 여러요소들을 레이어를 겹치듯 다층구조로 표현하고 있는데(그림1), 이러한 여러요소들은 하나하나가 기호로서 서로의 의미작용을 상승시키고 때로는 보충, 보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해체주의의 '차연'과 '산중', '보충' 등의 개념들로 설명할 수 있는데, 차연은 문장을 읽었을 때 항상 그 의미는 어느 정도 연기되고 지연된다는 것이다. 하나의 의미가 지연되면서 다른 의미와 관계하도록 만들고, 이런 의미는 나중의 의미에 의해 수정되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의 연쇄는 기호들간에 또 다른 기호들의 흔적을 담고 있어 끊임없이 복잡한 구성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텍스트의 차이의 개념이 맥코이의 작품에서 읽을 수 있는 부분이다.

21) 김민수 모던 디자인 비평 안그래픽스 1994 p197

22) 김민수 모던 디자인 비평 안그래픽스 1994 p179

또 하나 데리다는 다의성이나 텍스트를 초월하는 잠재적인 것을 다시 나타내는 것으로 '산중'의 개념을 사용하는데 산중은 모든 사물을 잠재적으로 보충하고 본질적으로 무한히 치환케 하는 것이다. 맥코이의 작품에서 보여지는 문장들의 간섭과 다층의 중복등의 방법은 결국 선적인 독서 방법에서 데리다가 말한 차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미의 지연을 보완하고 보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선입관으로써의 언어를 해체하고, 이러한 방식이 이미지에 응용되어 형태는 눈에 보면서도 읽혀질 수 있고, 텍스트는 읽히지 않고 단순히 보여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디자인에서 보이는 이러한 해체 경향의 대표적인 예로는 데이빗 카슨(David Carson)이 아트 디렉터로 있는 레이건(Raygun)잡지이다. 레이건지는 데이빗 보위의 Monage Daydream의 가사 "...put a ray gun to head..."의 가사에서 착안한 음악잡지로 그 디자인적인 파격성으로 젊은이들을 많은 독자로 끌어들이고 있으며, 카슨은 레이건지를 통해 '음악의 그래픽화'라는 평가를 받았다. 레이건지 디자인의 파격적인 면은 제호와 포맷이 결정되어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잡지의 형식을 고정시키지 않음으로써 다양하고 상이한 체계와 디자인으로 환기시키고 직접적인 통합과정이 지연되어 인식의 범위를 넓히고 정체되어 있지 않는 가변적인 잡지의 성격을 창조하고 있다. 또한 활자를 여러층으로 겹치거나 단어들 이 촘촘듯 자간, 행간이 무시되기도 하고 행도중에 글자의 크기, 두께, 형태등이 달라지기도 하는등, 기존의 타이포그래피의 규칙들을 무시하는 모습들도 에이프릴 그레이만(April Greiman)의 뉴웨이브(New Wave)나 크랜부룩 스타일, 그리고 해체주의의 영향에 의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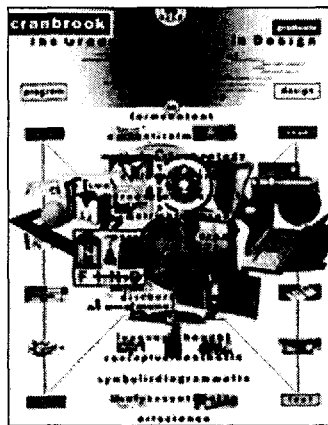


그림1. 캐더린 맥코이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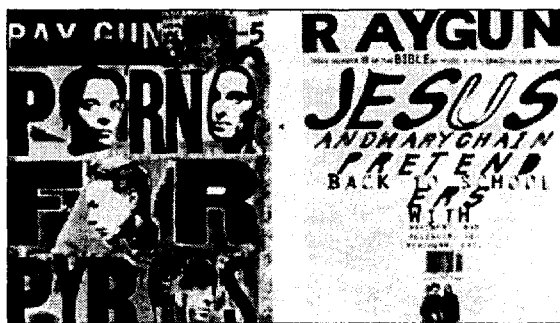


그림2 데이빗 카슨의 레이건지의 표지

5. 해체 타이포그래피의 스타일 분석

5-1. 활자 형태의 해체

활자의 해체 양상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크게 나누어 '형태'에서의 해체와 '성격'에서의 해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통적 그래픽 디자인에서의 활자는 그 조형적 구조와 균형, 아름다움, 가독성등이 그 가치 기준이 되어왔다. 해체 타이포그래피에서는 이 모든 것을 해체한다. 겨우 읽혀질 만한 정도로 잘려나가고 부서진다. 심지어 읽을 수조차 없이 파괴되어 활자로서의 의미를 상실하기도 한다. (그림3)

활자체의 파괴는 과거 형이상학의 붕괴를 추구하는 해체의 한 방식이며 로고스 중심주의에 대한 해체이다. 또한 활자로서의 의미가 상실된 파괴된 활자의 조각들은 데리다의 흔적과 산중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흔적은 단순히 기원의 소멸이 아니라 기원이 형성된 것은, 흔적에 의해서 반작용된 것이며 이러한 흔적은 기원의 기원이 됨으로써, 모든 내용이 결정되기 이전에 차이를 낳게 하는 작용으로 간주된다.

또한 산중의 개념은 처음의 활자로 부터 떨어져나가 곳곳이 흩어지고 새로운 의미작용을 해나가고 있는 활자의 모습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데이빗 카슨이 레이건지에서 보여주고 있는 여러층으로 겹쳐지거나 잘려나가거나 혹은 지워져 흔적만 보이는 활자들, 또 활자의 좌우가 바뀌었거나 오타가 교정되지 않은 듯한 느낌 등은 차연과 산중, 흔적의 개념을 전략적으로 잘 반영하고 있다. 또한 각기 다른 형태와 성격이 합성된 형태의 서체들이 개발되고 있는데, 이를 형태의 해체면에서 보면 고정되고 의미확정적인 형태는 해체되고, 상이한 형태가 중복되고 겹쳐짐으로써 직접적인 의미작용을 지연시키고 보충함으로써 그 인식의 범위를 확장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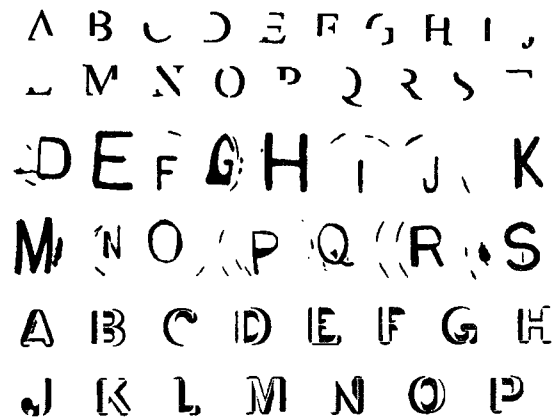


그림3. 다양한 해체 스타일의 활자들

5-2 활자 성격의 해체

모더니즘과 인터내셔널 스타일이 추구하던 객관적이고 기능적인 간결한 스타일이 추구하던 원칙들은 이미 오래전에 그 보편성을 잃고 다양한 성격의 활자체들이 개발되고 있으나 해체 타이포그래피에서

보여지는 활자 성격의 해체는 또다른 차별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미 미래파나 다다, 아방가르드 등에 의해 다양한 타이포그래피적 실험이 행해졌으나, 해체 타이포그래피는 해체 철학의 영향에 따라 그 체제내의 구성이나 의미를 분석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부터 출발한다고 보여지므로 활자 성격의 해체는 활자개발에 있어서 의미확정을 보류시키고 활자 성격의 비결정성으로 부터 출발한다. 즉, 객관적 활자란 이미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활자체, 다양한 성격의 활자체의 보충에 의해 텍스트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활자들은 이미지화되어 텍스트의 내용을 시각화하고, 또 보충해서 텍스트를 이해시키는 데 일조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상이한 성격이 합성된 서체들 역시, 서로 상반되는 특징을 갖는 서체들을 각각 잘라 합성해서 서체 자체의 성격을 애매하게 함으로써, 즉각적인 의미작용을 지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5.3. 포맷의 해체

포맷의 해체 역시 포맷을 이루는 텍스트를 구성하는 '방식'에서의 해체와 그 '구조'의 해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텍스트를 구성하는 데는 활자의 종류와 크기, 굵기, 자간, 행간, 글줄 길이, 단, 그리드 등이 필요하다. 이 모든 요소들로 구성된 포맷은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기능적인 방법으로 오랜동안 타이포그래피와 편집 디자인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왔다. 해체 타이포그래피에서는 거의 모든 요소의 기준에서 벗어나 있다. 글자의 스타일, 두께가 문장도중에 달라지거나, 자간이 너무 벌어져 한 글줄에 철자 몇 개만으로 구성되기도 한다. 또 서로 다른 서체의 단이 일부 겹쳐지기도 하고, 자간과 행간이 무시되어 글자가 겹치거나 행간없이 글줄이 붙어버린다. 행에서 벗어나 단어나 글자들이 춤추듯 움직이기도 하고, 띄어쓰기나 문단 나누기는 내용에 따라 띄우는 것이 아니라 시각적 리듬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한다. 여기서는 문장의 구조를 이루는 자간, 행간, 단의 의미는 찾아보기 힘들고, 아예 그리드는 존재하지도 않는다. 이러한 표현은 텍스트의 분해와 해체가 목적이 아니라 차연되고, 산중되고, 보충됨으로써 더 많은 의미작용을 하고, 본질적인 언어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텍스트들 자체의 의미를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간의 관계적 차연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포맷 구조는 텍스트의 구조화, 내용의 구조화, 편집 디자인의 책의 구조를 의미한다. 해체의 목적은 이러한 구조를 해체시키는 것이므로 해체주의에 의한 타이포그래피에서는 이러한 구성 형식을 거부한다. 제호나 포맷, 그리드부터 결정하던 디자인 작업에서 벗어나 비결정적인 형식을 취하고 있다. 즉, 구조를 우회함으로써 그것을 지지하고 있던 제반 가치를 불안정한 상태로, 즉 허공에 매단 상태로 만들면서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내는 작업방식이다. 제호나 포맷이 정해지지 않으므로 텍스트와 기호의 의미가 차연되고, 고정되지 않는 형식을 통해 즉각적인 인식의 통합을 지연시키고, 계속되는 상이한 디자인과 기호, 우연성들로 인해 결국 그 디자인의 인식의 범위는 확장되는 것이다. 실제로 레이건지는 이러한 인식론적 확장에 의해 젊은이들로부터 선풍적 인기를 끌면서 14만부이상의 발행부수를 기록하고 있다.

5.4. 타이포그래피를 읽는 방법의 해체

모던 타이포그래피에서 보여지는 위에서 아래로, 좌에서 우로 선을 따라 글을 읽어 내려가던 선적인 구조는 글을 읽어내려감으로써 진리에 다가갈 수 있다고 믿던 근대의 서양철학이 반영된 것으로 해체 철학은 이러한 구조를 해체하고 있다. 즉, 서구철학의 형이상학이 추구하던 텍스트의 객관성은 이미 그 보편성을 잃었다.

불확실성의 다원화된 세상에서 이러한 텍스트 읽기는 계속되는 글 읽기에 의해 의미를 보충해야 하는 것이다. 근대 타이포그래피의 체계가 보여주는 이러한 구조를 따라 읽는 방법을 '선형적 독법'이라 한다. 이러한 읽는 방법은 여러가지 의미에서 해체되고 있다.

캐더린 맥코이는 읽는 것(reading)과 보는 것(seeing) 사이의 전통적인 구별방식에 이의를 제기 했는데, 이미지도 읽힐 수 있으며 텍스트 역시 단지 보여지는 시각적 대상물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²⁹⁾

결국, 보여지는 방법과 읽는 방법의 변화를 말하고 있는데 따라서 디자인은 모던 타이포그래피가 추구하던 구조와 체계에서 벗어나 다양한 방법으로의 접근이 가능하다. 이는 새로운 조형적인 실험이라는 측면에서는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커뮤니케이션이란 측면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해체 타이포그래피는 문장이나 단어를 겹치거나 문장에서 핵심적인 용어의 서체를 바꾸거나 굵기를 굵게 한다거나 크기를 키워서 강조하거나 문장 중간에 보충 설명이나 간섭등의 방법으로 이해의 범위는 확장되고, 커뮤니케이션 역시 확대되는 것으로 여긴다.

데이빗 키슨은 글이나 책이라는 것에 대해 그리고 첫페이지 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거나 행과 문단 짜임새에 맞추어야 한다는 등의 인식에 대해 '이것은 몸에 배인 습관일 뿐이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법이나 규칙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즉 '보는 것'과 '읽는 것', '텍스트'와 '이미지', '시각적인 것'과 '언어적인 것'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이러한 타이포그래피의 포맷, 구조의 변화에 따라 그 변화된 텍스트를 읽는 방법 또한 해체되고 있다는 것이다.

6. 해체 타이포그래피의 특성

해체 타이포그래피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정립되지 않은 과도기적인 현시대에서 해체 타이포그래피의 특성을 정확히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더구나, 앞으로 언젠가 모습을 드러낼 새로운 패러다임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형태일 것이고, 또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체는 한마디로 정의되거나 한가지 형식으로 규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해체적 특성을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되기전의 과도기적 시점에서 해체 타이포그래피의 특성을 살피는 것은 미래를 위한 가치있고, 기초적인 작업이 될 것이다.

6-1. '해체(Deconstruction)'의 작업화

'해체'는 사물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기 때문에 한가지의 형식으로 규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해체의 작업화는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으며 이러한 '다양성'의 부분이 디자인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하

매력적이고 무한한 가능성의 부분으로 여겨진다. 해체의 다양한 작업화는 우선 기능주의적이고 원리적이며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관점, 또 보편성에서 벗어나 비정형적이고 탈원리적이고 우연적, 임시적인 것을 추구한다. 활자는 그 보편적이고 의미확정적이던 형태가 해체되고 성격이 모호해져서, 활자 성격의 결정이 보류되면서 주관적이고 다양한 성격의 활자체가 등장하고 있다. 텍스트에서는 구체적이고 보편적이던 텍스트 레이아웃에서 벗어나 비연속성, 차연, 의미소멸 등에 의해 여러가지 의미를 가진 조직으로 새롭게 편성된다. 여기서의 디자인 원리는 탈구성적이고, 불연속, 전위, 분열, 파괴, 절단, 왜곡, 은유등으로 설명될 수 있다. 탈구성적이라는 것은 서로 통일성, 전체성을 만들어내는 개념을 부정하는 것으로 텍스트를 개념적으로 분해하고 분석해서, 단순한 변형이나 레이아웃의 영역을 초월한 무의식적인 이미지와 텍스트의 질서, 근원을 탐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체의 개념과 일맥상통한다. 또 이러한 텍스트의 구성이 결국 기존의 텍스트를 해독하던 방법의 해체까지도 가져와서 읽는 방법과 보는 방법의 개념까지도 영향을 받아 다양한 읽는 법과 결국 커뮤니케이션의 의미확대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6-2 타이포그래피와 이미지들의 상호의존성

해체주의 타이포그래피는 언뜻보면 각각의 요소가 이질적이고 불연속적이어서, 다양한 요소들이 제각기 목소리를 높여 서로 상관없이 지면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이는 해체 타이포그래피의 관점을 오도한 것이다. 해체의 개념에서 보면 텍스트는 항상 완전하지 못하고 자율적으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각각의 요소와 영역들간의 상호작용 관계속에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데리다는 말과 글은 특권이나 우위의 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적으로 얽혀있는 관계로 보았다.²³⁾ 즉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그것이 말이란 문자이든 간에 현전하지 않는 다른 요소와 관련되지 않고는 기호로 작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텍스트의 분해나 해체가 아니라 차연과 보충, 산중들의 개념들을 관계시킴으로써, 의미가 지연되고 그 관계들의 치환에 의해 의미 확장을 하게되는 것이다.

이는 이미 우리의 현대 사회가 가진 변화하는 복잡성과 그 복잡한 관계의 상호의존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해체주의 타이포그래피는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다양한 텍스트의 형태와 이질적인 성격들이 서로 간섭하고 보충되고 반복되고 중첩하고 있으며, 사진이나 일러스트레이션 같은 이미지들도 이전의 이미지와 활자라는 이분법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사진과 텍스트에 각각 중첩되어 간섭하고 서로의 의미를 보충하고 보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사진 이미지처럼 텍스트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이거나 좋은 사진으로 평가 받기 위한 사진의 완성도나 해상도 보다는 텍스트의 의미를 상승시키고 더 많은 의미를 포함할 수 있는 이미지들이 부각되어 텍스트와 상호 의존적으로 작용하여 서로의 영역에 침범하여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것이다.

6-3 디자인의 비결정성

자코데리다는 언어는 그 체계속에서 불확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며 이러한 언어로 표현되는 절대적 진리나 의미는 지연되고, 의미란 주관에서 비롯된 허구의 산물이라고 주장하면서 의미와 체계의 비결정성으로부터 출발한다. 모든 의미와 체계가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무한히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가능성은 디자인 작업에 매력적인 성격으로 작용하면서 다양한 표현과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러한 비결정적인 성격이 과거의 타이포그래피 원리와 기준을 넘어, 항상 변화할 수 있고, 이질적인 형태의 결합이나 보충작용된 열린 형태와 개방적인 레이아웃을 창조해낸다. 이러한 비결정적인 성격의 디자인들은 기준과 규칙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으나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실패한 것으로 인식되기도 하는데, 해체 타이포그래피를 커뮤니케이션의 측면에서 보면 그 비결정성은 무조건적인 규칙파괴와 임시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빗 카슨의 레이건지의 여처럼 제호와 포맷이 정해져 있지 않음으로써 즉각적인 커뮤니케이션은 더더질 수 있으나, 잡지의 형식이 고정되지 않음으로써 기호와 의미가 차연되고, 의미가 확정되지 않고 지연되는 임시적인 성격을 통해 그 잡지의 성격은 매호마다 다음호, 다음호로 지연되고, 결국 잡지의 형식이 유동적인 비결정성이라는 잡지의 성격을 갖고, 그 의미는 확장되는 것이다. 이러한 해체 타이포그래피가 보여주는 비결정성의 원리들은 차연, 불연속, 산중, 분열, 도치, 전위, 흔적 등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는데 해체 타이포그래피가 보여주는 이러한 가변적이고 비결정적인 성격들은 유동 형식으로 새로운 타이포그래피 형태를 도출하기 위한 또다른 새로운 특징으로 작용하고 있다.

6-4 디지털 기술의 적용

해체 타이포그래피는 해체 철학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철학의 영향만으로는 당연히 표현의 한계성이 있다. 해체 철학의 출현과 함께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그 대중적인 보급이 맞물렸기 때문에 비로소 새로운 형태의 해체 타이포그래피가 가능해진 것이다.

지금은 과도기적 시작단계이다. 이 디지털 기술의 발전 속도와 그 가능성으로 볼 때 새로운 타이포그래피의 형태와 패러다임은 아직 짐쳐볼 수가 없다. 현재 보여주고 있는 스타일을 포함하는 더욱 큰 범위의 패러다임일 것이며, 그것은 해체적 성격이 아닐 수도 있다. 확실한 것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같이 할 것이라는 점이다.

알고있는 바와 같이 20세기 초반에 타이포그래피의 표현 가능한 실험들은 모두다 이루어졌다. 이후의 여러 실험적 타이포그래피와 기능적 타이포그래피 작업들은 20세기 초의 타이포그래피 작업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의 해체 경향의 타이포그래피에서는 20세기초와는 다른 양상과 표현이 존재한다. 이는 해체 철학과 또 하나, 디지털 컴퓨터의 기술이 가능하게 해준 것이다. 따라서 디지털 컴퓨터의 기술이 해체주의 타이포그래피 스타일에 앞으로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왜냐하면 디지털 기술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23) J.Derrida "Position"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1981) p26에서 인용한 김민수 앞글에서 재인용 P169

가 타이포그래피의 도구가 되었기 때문이다.

역사적 맥락으로 보아도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 발명후의 타이포그래피와 책의 발전, 그 후 사진식자 이후 타이포그래피와 편집의 변화만 보더라도 컴퓨터에 의한 표현의 변화와 그 영역의 확장은 이제 막 시작된 것으로 그 가능성은 어디까지인지 알 수가 없다. 이러한 디지털 컴퓨터의 기술에 의한 타이포그래피의 자유로운 작업이 가능하게 된 퍼스널 컴퓨터의 대중적인 보급이 해체 타이포그래피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새로운 표현 양식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퍼스널 컴퓨터는 모니터상에 이미지, 텍스트, 레이아웃 등 필요한 요소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준다. 텍스트와 이미지를 모두 직접 디자이너의 손으로 입력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식자 오퍼레이터가 하던 타이핑과 세팅이 디자이너의 몫이 되었으며, 이미지도 스캐너를 통해 곧바로 모니터에 띄우고 디자이너가 자유자재로 조절하고, 변화되는 모습을 즉각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 활자의 크기와 스타일의 조정, 변형서체, 레이아웃과 이미지의 크기조절과 변형도 자유로워졌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컴퓨터의 덕택이고 이로 인해 디자이너의 아이디어의 표현의 측면에서는 더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되었으나 그 만큼 더 많은 기능과 지식 그리고 감각을 필요로 하게 되어 더욱 큰 책임감을 갖고 이러한 기술적 지식의 습득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디지털 기술에 의한 또 한가지의 변화는 새로운 형태의 폰트(font)제작의 엄청난 증가이다. 하드웨어와 함께 폰트 제작을 용이하게 하는 소프트웨어의 보급으로 인해 폰트샵(font shop)이 출현하게 되었고 새로운 스타일과 개인적인 폰트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한글의 경우 그 제작의 엄청난 양으로 인해 몇몇 선구자에 의한 서체 밖에 없었으나 이제는 그 제작과정이 비교적 용이해져 한글 타이포그래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해체철학과 함께 디지털 기술에 의해 이제 타이포그래피는 기능적이고 무표정한 형태에서 다양한 스타일, 다양한 성격으로 복잡다단한 현대 사회의 표정을 반영한 다양성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7. 결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엘빈 토플러가 제시한 제 3의 물결을 넘어 서고 있다. 컴퓨터가 이루는 사이버 세계, 끊임없는 정보의 교환과 소비, 가치체계의 혼란, 매순간 점점 더 복잡해져 가는 세계를 살고 있는 현대인이 요구하는 디자인은 분명 모더니즘 시대의 그것과는 다른 것일 것이다. 그러한 요구가 원하는 해답이 꼭 해체적 성격만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해체철학의 영향이 문학, 정신분석학, 예술, 건축 등 문화 전반에 파급되고 있는 한 '해체'라는 시대정신이 반영된 디자인물은 불가피하게 보인다.

현대 타이포그래피의 해답이 해체는 아니다. 지금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향한 혼란시대이다. 앞으로 나아가게 될 새로운 패러다임이 무엇인지는 모른다. 이러한 과도기적 상황에서의 해체주의적 타이포그래피의 고찰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제시한다.

해체와 중첩, 혼적과 산중, 은유, 모호성.....

해체주의 타이포그래피가 가지는 의의는 그 해체적 어휘와 전략이 아니다. 해체주의 타이포그래피에서의 '해체'란 커뮤니케이션으로 부터 시작해야 한다. 또한 타이포그래피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에서 다시 생각(rethink)하는 것으로 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은 타이포그래피가 커뮤니케이션되지 않고 의미 전달되지 않는 의미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을 모색하는 커뮤니케이션의 확대의 측면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해체의 논리가 반영된 타이포그래피는 자유로운 사고를 지향하여 이전의 타이포그래피의 원리와 대립 개념들을 해체시키고, 일차적인 원칙이나 과정을 고집하지 않으며, 표현언어 또는 기호, 상징성을 다양한 암시와 상상력, 간섭, 다층화, 은유 등으로 그 다양성을 표현했으며, 이는 현대라는 복잡한 성격의 시대정신을 표현하는 새로운 표현언어로서 열린 사고로 다양한 가능성을 내포하여 타이포그래피의 표현 영역을 확장하려는 시도이다.

참고도서

- 김지현, 타입과 타이포그래피, 임프레스, 1997
- 김형호, 데리다의 해체 철학, 민음사, 1994
- 존 레월린저, 서우석 김세중 역, 데리다의 해체주의, 문학과 지성사, 1988
- 이광래, 해체주의란 무엇인가, 교보문고, 1989
- 김민수, 모던 디자인 비평, 안그라픽스, 1994
- 황인권, 현대철학 산책, 백산서당, 1996
- 임석진, 철학사전, 서울:이삭, 1988
- 크리스토퍼노리스, 앤드류벤자민, 도서출판 청람역, 해체주의란 무엇인가, 도서출판 청람, 1995
- 김성근, 탈구조주의의 이해, 민음사, 1988
- 해의석학대담 '해체'의 철학자 자크 데리다-대담:김성도, 조선일보, 1997.1.20
- 우라미야끼라, 이순혁역, 유혹하는 오브제, 도서출판 국제, 1994
- 스티븐 헬러외, 왜 디자이너는 생각하지 못하는가, 도서출판 정글, 1997
- 정원일, '시각디자인에 있어서 비선형적 구조에 관한 연구', 디자인학 연구25, 1998
- Lewis Blackwell, Twentieth Century Type, Munchen:Bangert Verlag, 1992
- Blackwell, Carson, The End Of Print Chronicle Books 1995
- Blackwell, Carson, David Carson:2ndsight, Laurence King Publishing, 1996
- Rob Carter, Ben Day, Philip Meggs. Typographic Design:Form and Communication Van Nostrand Reinhold 1985
- Graphis Digital Fonts, Graphis Press Corp, 1996